

유사휘발유 100억원대 판매 적발

제조기업 및 주유소 직원 13명 구속 ... 5개월간 680만리터 제조

100억원대 유사휘발유를 제조해 경기도 일대에 판매해온 15명이 적발됐다.

경기도 화성 동부경찰서는 4월7일 100억원대 유사휘발유를 제조해 경기도 일대 주유소에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박모씨 등 제조책 3명을 비롯해 운반책 3명, 주유소 사장과 직원 7명 등 총 1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유사휘발유 6만리터와 운반에 이용한 탱크로리 유조차 4대를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2008년 11월부터 화성시 비봉면의 임대 창고에 6만리터 규모의 저장탱크 2대를 갖추고 솔벤트(Solvent)와 톨루엔(Toluene) 등을 섞은 유사휘발유 680만리터(102억원 상당)를 제조해 수원 5곳, 용인 1곳 등 경기도 일대 주유소 6곳에 최근까지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새벽 시간에 유조차에 실린 유사휘발유를 주유소 저장탱크에 옮겨 담고 유사휘발유와 정품휘발유의 주유기를 구분해서 사용함으로써 단속에 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4/08>